말해봅시다

말해봅시다는 경희가족 모두의 참여한 입니다. 학내·외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 대한 독자들의 얘기를 대학주보사는 성실히 듣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원고량:200자 원고지 4~6매 하이텔(ID):jang 3
◇보낼곳:서울·수원(본사편집실) 천리안(ID):choarha

학생 자가용등교 지양해야

동질의식과 교통사정 인식필요

우리 학교에는 소위 할딱고개라 불리는 길이 있다. 이 길은 매우 가팔라서 한겨울에라도 오르자면 땀이 날 정도이다. 여기다 차량까지 지나가면 더욱 장관으로 그렇지 않아도 혈혈거리며 간신히 올라가는 학생들에게 흙먼지를 뒤집어 씌운다. 가뜩이나 좁고 가파른 길에 차량까지 가세하여 먼지를 일으킨다는 것은 너무한 일이다. 더군다나 그 차량들의 운전자는 대부분 같은 학생이다. 자가용 등교라는 것을 자기 자유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자유라는 것으로 인해 대다수 학우들의 괴로움을 가중시킨다면 반성해야 할 문제이리라. 더구나 넓게는 환경오염, 우리나라 교통문제, 좁게는 학교내 주차장시설을 고려해 볼 때 학생신분으로서 자가용 등교가 꼭 필요한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리라.

엄 정 미
〈문리대 물리·1〉

대학생문화운동 확산 시급

솔선수범하는 경희인 이길

교내 매점에서 200원 하는 휴지를 산다. 입구를 열기 위해 뒤집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민족 자주 문화 건설을 위한 생활·문화운동… 노동은 즐거움과 생활의 기쁨을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중략…사람을 어여주고 함내서 삶을 개척해 나가는 단결과 사랑을 표현하고, 어우러진 너와 내가 우리라는 하나로 되게 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현재 각 단대에서 행해지는 과지 모으기, 폐건전지 모으기 등이 이러한 문구의 구체적인 모습일 터이다. 그러나, 생활문화운동은 이러한 재생물품에만 국한된 것은 분명 아니고 글자 그대로 우리들의 생활 곳곳에서 건강한 삶을 이끌어낼 일이다. 유감인 것은 우리 캠퍼스내에서의 이러한 생활문화운동이 경희 학우들의 건강한 삶을 이끌어낼 정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사정이다.

타대학 같은 경우 전담 동아리 중심으로 전개되는 생활문화운동이 학우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등용문을 나서 이 거리를 둘러 보자. '파란 네타이에 줄무늬 팬티'의 현란함 속에 우리 학우들은 갈 곳이 없다! 가히 신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이 회기동 거리엔 호황중인 락까페, 락호프, 노래방… 이들의 매상고 대부분이 우리 경희 학우들의 지갑에서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또 공강 시간마다 학우들로 꽉 차는 당구장과 오락실이 있다. 휴지에도 찍혀 나오는 민족·자주문화건설의 목소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들려나와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때다.

신 중 식
〈점외·2〉

공통교양 수강인원 만원

선택 늘려 효율적 교육돼야

'공통교양강의'. 대학생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을 가르치는 교양강의시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고 있는것 같다.

9백여명의 많은 학생들이 넓은 강의실에서 함께 강의를 듣기때문에 대부분의 교수님들은 마이크를 사용하시는데 마이크를 들고 할 경우 소리가 울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들을수 없고 더욱이 칠판에 쓰여진 글씨는 희미하게 윤곽만 잡힐 뿐이다.

그리고 담당교수님 혼자서는 그 많은 학생들을 통제하기가 어렵다. 고등학교때도 한반은 60명남짓이었는데 더 높은 교육을 한다는 대학에서 이런식의 강의가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또, 만일 어떤 학생이 사회분야의 강의를 들으면서 과학서적에 얽혀 있다거나 출석 체크만 하고 강의실을 빠져나간다해도 그 학생에게 뭐라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공공연히 교양강의 시간은 과제를 하는 시간이 되거나 쉬는 시간이 되어버렸으니 소위 지성인으로 대표되는 대학생이 간섭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자기가 해야할 일을 회피하는 것은 지금가 아니라 방종이 아닐까!

학점을 흔히 목적 전치란 말이 있는데 교양 과목을 이수하는 목적은 자신이 흥미와 적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지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지 쉽게 학점을 따기 위해 시간 때우기로 하는 공부는 아닐 것이다.

자유가 주어진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도 질수있는 대학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식의 강의는 시간낭비와 돈낭비에 지나지 않으니 좀 더 효율적인 강의가 되기위해 담당교수님의 노고와 학생들의 새로운 마음가짐이 필요하리라. 그리고 교양과목수를 늘여 선택의 폭을 넓히거나 줄더 많은 교수님을 모셔서 시간 때우기식의 강의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송 현 주
〈자연대 수학·1〉

신약개발에 유기금속화학 도입

내가하는 공부

'내가 하는 공부'대신 '내가 하려는 공부'라고 생각해서 몇줄 써보려 한다.

나는 화학,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기화학 또는 유기금속화학에 대해 나름대로 공부하고 있고, 또한 앞으로 계속 연구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학문(유기화학)이 산업의 어디와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화학이 전공이 아닌 사람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안 광 현
〈자연대교수 화학〉

같은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공법에 따라 원가가 상당히 차이가 나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떤 특별한 이상적인 건물은 그러한 건물을 짓고 싶어도 공법이 개발되지 않으면 건설할 수가 없는 경우가 생기리라 생각된다. 여기에서 건물을 하나의 약 혹은 화합물이라 생각할 때, 건축할 때 사용하는 공법이 내가 공부하는 유기화학에 해당하는 것이다. 즉 어떠한 효능이 있는 약을 만들려 할 때 쉽게 그러한 목표의 화합물을 만들 수 있도록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특별히 나는 촉매에 관심을 두고 공부하고 있다. 즉 새로운 촉매를 개발하여 여러 곳에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

우리 수원 캠퍼스는 상당히 좋은 입지적 조건하에 있다고 생각된다. 주변에 여러 제약회사, 그리고 화학 회사의 연구소가 있는데 이러한 연구소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산·학협동으로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좋은 결과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내가 하는 것들이 단지 흥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산업체와 연결되어 산업에 응용될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

화학은 순수 학문이면서 또한 응용 학문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학교 실험실에서 하는 일들이 기업체의 연구소에서 하는 일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단지 기업체는 기업의 이윤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 연구 방식이 제한을 받지만 학교는 그러한 제한이 별로 없다는 것이 차이라면 차이라 할 수 있겠다. 기업체와 학교가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어떤 목표를 향해 추구해 나가는 그러한 연구를 앞으로 하고 싶고, 그러한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공부'이다.

제약기법 활성시킬 촉매개발

산·학 협동연구 산업에 응용돼야

유기화학은 모든 화학 관련 산업체와 관련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의약 혹은 농약 분야이다. 새로운 의약 혹은 농약을 개발하려 하거나, 기존의 잘 알려진 약을 만드는데 있어 사용하는 방법들을 개선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하려 하는 것이다. 좀 더 알기 쉽게 하기 위해 내가 연구하는 유기화학을 건물을 짓는 것과 비교해 보자.

어떠한 건물을 지으려 할 때

열림터

교수동정

황병곤 교수 방일

【수원캠퍼스】▲황병곤(의대·중문)교수=오는 4월6일부터 8일까지 자매결연 결성차 일본 테이꼬대학 방문

등 기

등기물 총무과로

【서울캠퍼스】▲이선희(국문·2) ▲류이희(철학·2) ▲송중문(법·1) ▲차경진(법·3) ▲한중민(행정·4) ▲권재철(행정·4) ▲염경우(행정·2) ▲김욱경(신방·3) ▲김병철(신방·3) ▲최은혁(경영·3) ▲최빈호(경영·1) ▲정운영(경영·2) ▲신학도(회계·4) ▲문주영(영교·4) ▲최성봉(영교) ▲김은경(식영·4) ▲이지영(의상·2) ▲김직수(한의예·1) ▲파대표(무용·3) ▲이수영(삼의원·222)

【수원캠퍼스】▲박종해(경영·1) ▲박병용(경영·3) ▲손소리(회계·4) ▲김홍두(화학) ▲김경회(환경·3) ▲강동호(환경·2) ▲신수진(유전·3) ▲김지영(유전) ▲이승재(유전·4) ▲이홍규(유전·2) ▲정찬근(유전·2) ▲지현철(유전·4) ▲장석형(기계) ▲전홍신(기계·4) ▲김현수(기계·3) ▲손용우(전자·3) ▲한백점(전자·3) ▲박철진(전자·1) ▲도우성(화공·4) ▲최윤호(화공) ▲김구택(건축·2) ▲김홍수(건축·2) ▲박성원(건축·3) ▲김재혁(건축·2) ▲배종훈(건축·4) ▲김세현(산공·4) ▲이재열(산공) ▲차승준(산공·3) ▲김정훈(산공·4) ▲박병철(원자) ▲윤우열(전산·정보통신) ▲김명선(전산·2) ▲김주학(입학·4) ▲유상훈(입학·2) ▲유종근(토목·4) ▲김원기(원예·4) ▲진영미(식공·3) ▲최성숙(조경·3) ▲정용진(태권) ▲카불럼학생회

분 실

분실자 본사편집실로

【서울캠퍼스】 ◆학생증=▲이은아(지리·91) ▲김병철(정외·89) ▲김성한(경영·89) ▲김기영(의예·89) ▲조영인(의예·90) ▲홍종우(의예·90) ▲신승우(한의예·89) ▲박윤경(치의예·90) ▲김현동(식약·89) ▲심수진(기약·91)

【수원캠퍼스】 ◆지갑=▲조수형(일문·91) ▲장권년(전자·88) ▲정덕규(산공·92) ▲송정호(원자력·92)

동문모임

예천·안동 친목축구대회

【서울캠퍼스】 ▲서울사대부교=오는 30일 오후 5시 수화장 ▲고려고=오는 31일 오후 5시30분 태화반점

【수원캠퍼스】 ▲예천·안동 친목 축구대회=오는 4월 1일 오후 5시반 공대운동장 ▲환일·예일 동문회=오는 31일 오후 5시반 공대식당

'문맥' 문집3호 발간

문학동아리 '문맥'이 문집 3호 '그해 겨울의 전성'을 발간한다.

오는 30일 선보일 '그해 겨울의 전성'은 주로 89학번들의 작품들이 실려있다.

한편, 학생회관 5층에 자리한 문맥은 신입회원모집중에 있다.

독자초대석

이병하(미교·3)

朔風

'신한국 창조'는 부정·부패(?)

거두절미하자. 하고픈 말을 이리저리 저리 둘러 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요즘 우리는 어떻게 사는게 가장 자기답게 사는지를 곰곰히 되씹어 볼 기회를 갖게 된다. 또 어떻게 해서 저렇게들 철저히 부정과 부패의 소굴을 무감각하게 들어다 보고 있었는지 자조 섞인 한숨부터 일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게 '잇몸 닦기운동'이며 그 일환이 재산공개였다.

보통 돈 많은 부자를 두고 자기 재산이 얼미인지 확실히 알지 못한다고 한다. 이러한 사람들이 즐비한 요즈음, 스스로 그 재산을 평가해 '얼마요' 하고 공개하는것이 좀처럼 쉬운 일은 아닐 터이다. 특히 국민의 녹을 먹는 공무원의 경우는 축재의 과정이 설득력을 잃을 땐 하루아침에 폐가망신 당할 수 있어 걱정이 태산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목도하고 있다. 북해에서 녹아 내린 빙산이 동해 바다에 떠내려와 한당이의 얼음조각으로 내 비칠 수 밖에 없는 이 춘삼월에 우리는 또 한번의 총체적 권력 부패에 대한 '빙산의 일각'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다.

신정부 각료 명단 발표가 나자마자 세평의 각료가 갖가지 치부로 도중 하차하더니 이제는 여당의원들의 부정 축재혐의가 온 나라를 들끓게 하고 있다. 그동안 권력의 양지만을 찾아다닌 사람일수록 재산 규모는 더 한층 가팔르다. 정치판에 뛰어들어 국회의원 선거 한번 치부고 나면 집안에 남는게 없다고들 하는데 일정한 직업없이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다는게 국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재산의 규모를 보면 거의 대다수 의원들이 기름 빼고 따귀 빼서 축소 조작해 버렸으니 그들의 진정한 재산 규모를 가늠키는 참으로 어렵다. 이렇게 되면 그들의 은닉 재산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유언비어가 난무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결국 국민들은 윗물 맑기운동 차원의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를 저급한 '정치쇼'라고 치부해 버릴지도 모르겠다. 우리는 누차 강조했듯이 문민시대에 적합한 정치풍토 조성과 깨끗한 정부, 청렴한 공직자상을 갈망하고 있다. 그런데 수대에 걸친 부정축재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 농지매입, 그린벨트 훼손, 탈세에 이르는 상처 투성이의 국회의원과 장차관을 믿고 이들이 부르짖는 '신 한국 창조'에 과연 동참할수 있을까하는점이다.

이제는 과거의 어두운 시절에나 있음직한 일과성 개혁을 국민은 용납치 않음을 우리 모두가 확인하고 있는터이다. 우리는 이러한 부정과 부조리를 척결하자는 컨세션스를 이미 지난 연말 대선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듯 과거의 깊은 상처의 가해자들이, 과거 특혜의 시혜자들이 아직도 버젓이 기득권을 부르짖으며 공직을 독점하고, 국회요직을 차지하고서는 '개혁'과 '변화'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음을 인식해야 한다. 떳떳하지 못한 축재를 공개해 놓고 이것 역시 엄연 그대로 받아 들일 수 없는 허허로움에 국민 일반은 참담해 하고 있다. 역사 이래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권력과 자리를 앞세운 축재를 용서하지 않았다. 모두 함께 흥분하고 단죄 했으나 이것은 곧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정권 초기의 요란한 구호였음을 뒤늦게 깨달곤 했다.

자! 또 시작인가. 세월이 약이됐던가. 또 그냥 넘어 갈뿐가.

우리 두눈을 부릅뜨고 이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자.그리고 다시 말하자.

(해돋이)

세계인의 상표 SHARP

D.A.L.(Direct Algebraic logic)이란?

함수, 방정식, 논리연산등의 등식문제를 이제까지 수식과 기호를 거꾸로 입력시킴으로써 복잡하고 다단계 계산하던 방식과는 달리 새로운 방식의 D.A.L.시스템 계산기는 수식과 기호를 앞에서부터 차례로 키를 눌러 계산하는 방식으로 더욱 빠르고 간편한 기능을 갖춘 혁신적인 공학계산기입니다.

D.A.L system 예제 • 연산표시 예 : 10 +√sin 30 + cos 45 =

• 이제까지 계산방식 10 + (30 sin + 45 cos) √ =

• 새로운 계산방식 10 + √ (sin 30 + cos 45) =

D.A.L. 시스템개발로 더욱 편리하고 더욱 빠른 샤프공학용계산기

기초공학 이용 최선의 선택

32개 미터법 환산 복소수 계산

멀티그래픽 드로잉기능을 갖춘 프로중의 프로계산기

NEW EL-509G ₩19,000

NEW EL-556G ₩25,000

NEW EL-9200 ₩88,000

NEW EL-9300 ₩99,000

공식 WINDOW와 대수식 보존기능

풍부한 99개 공식메모리

EL-5020 ₩33,000

EL-5030 ₩47,000

2라인의 공식과 해답을 동시확인

EL-512S ₩38,000

혁신적인 그래픽 공학계산기능

EL-9000 ₩72,500

CE-50P

알기쉬운 24자리 문자식 표기계산

EL-5150 ₩69,300

엔지니어를 위한 포켓사이즈의 프로용 컴퓨터

PC-E500 ₩109,400

리조주변기기
• PC-E500용 전용프린터(CE-126P
• 컴퓨터와의 연결시용 : RS-232C 케블(본체:CE-130T)
• 확장 RAM CARD (16KB,32KB,64KB)

※ 샤프 공학용계산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하고 친절하게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점 및 A/S센터

OA산업의 기수 샤프전자산업(주)